

#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연구

드라마 <파친코>의 한국어, 영어 자막을 기반으로

계명대학교 최진실

# 토론문

- 최근 큰 인기를 받았던 드라마<파친코>를 대상으로 한국어 SDH와 영어 SDH를 비교 분석하면서 목표 독자에게 적절한 SDH는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통찰한 재미있는 발표 감사합니다. 최근 국내의 스트리밍 플랫폼의 인기와 더불어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클로즈드 캡션은 일반인들에게도 매우 인기가 있어서 향후 학계나 일반 사회에서 더욱 더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

- 1. SDH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음악의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음악을 자막 처리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요?
- 2. <파친코>에서 가수가 헨델의 ‘울게 하소서’를 부르다가 멈춘 뒤 갑자기 춘향가를 부른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한국어 SDH에서는 해당 정보를 전달해 주지만, 영어 SDH에서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전후 맥락에서 헨델을 부르다가 춘향가를 불렀다는 단서를 찾을 수는 없었는지요?